



■ 달콤 씹싸름한 설탕의 역사와 라틴아메리카

— 시드니 민츠의 『설탕과 권력』 서평

조 경 진

1. 개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펼쳐진다”

지난 가을 시드니 민츠가 한국을 다녀갔다. 그때 마련된 공개 강연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일반인이 참석하여 그의 학문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시드니 민츠는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의 학문세계는 카리브 지역학과 크레올 문화, 이주와 이민, 중상주의 무역, 음식의 역사, 농촌경제학, 노동 사회학을 총망라한다. 실증주의적 전통에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총체적인 접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화인류학이란 원래 대단히 일상적이면서 미시적인 사회문화적 사실을 거시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맥락에 자리매김하는 분야다. 시드니 민츠야말로 이 같은 문화인류학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 준 거장 중 한 사람이라 하겠다.

『설탕과 권력』은 시드니 민츠의 가장 잘 알려진 저서이며 그를 세계적인 석학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작품이기도 하다. 민츠

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인류학 민족지(ethnography)를 집필하기도 했지만,¹⁾ 『설탕과 권력』을 출판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 책 표지에 실린 홍보문구의 하나는 이렇다. “이 균형이 잘 잡힌, 지적이며 대망을 품은 책은 그 어떤 사람도 만족시킬 만한 최소한의 한 가지를 선사할 것이다. 이 책을 여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들이 펼쳐진다.” 이 책에서 민츠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설탕이라는 재화(commodity)²⁾의 역사를 추적한다.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너무나도 확고한 자리를 잡은 설탕이 그리 흥미진진한 역사를 가졌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제시하는 그 역사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만도 아니다. 신대륙의 발견과 노예의 수입, 그 노예의 노동력으로 가동시킨 대형 플랜테이션과 식민지 농업경제는 우리가 고등학교의 세계사 교육과정에서도 배워 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민츠의 저서가 특별한 이유, 다시 말해 우리가 미처 깊게 인식하지 못했던 세계로 인도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들이 서구 사회의 산업혁명, 특히 영국 노동자 계층의 구성과 통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관성(connections)이라... 『설탕과 권력』의 키워드는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분명 ‘설탕’ 그리고 ‘권력’, 이 두 가지 용어이지만, 사실상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설탕과 권력의 연관성’이었다. 인류학자 민츠는 왜 설탕과 권력의 연관성을 서술하게 됐을까? 그가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는 지극히 평범한 인류학적인 탐구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민츠가 조사

1) Mintz, Sidney W., 1960, *Worker in the Cane: A Puerto Rican Life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 여기서 commodities를 ‘재화’로 번역해서 쓴다. 이를 ‘소비재’ 또는 ‘상품’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가공된 최후의 생산공정을 거친 완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므로 사탕수수 원료와 같은 중간단계의 소비재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고 판단해서 ‘재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를 진행한 푸에르토리코 농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카리브 지역 사람들의 현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을까? 이런 삶의 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었나?” 하고 묻게 됐다는 것이다.

『설탕과 권력』은 카리브 지역의 삶의 방식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메트로폴리스, 즉 경제중심부와 식민지의 특정한 생산·유통·소비 체제가 구축되면서 만들어졌다. 메트로폴리스와 식민지의 연관성은 곧 지배와 피지배라는 위계적인 힘의 관계에서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농업경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 연관성은 식민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대량 생산된 설탕은 다시 메트로폴리스에서 산업혁명의 노동자의 식탁으로 옮겨진다. 영국 노동자의 식생활에 따뜻한 홍차와 설탕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의 일꾼들이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하면서 노동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가 노동자들을 엄격한 공장제도의 규율에 길들여지게 한 요인이 됐다. 그 힘의 연관성은 식민지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스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민츠는 보여 준다. 카리브 해의 플랜테이션 농업노동자는 겉으로 보기에 영국 산업혁명의 공장노동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집단의 운명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세력이 실은 동일했다.

2. 설탕의 생산과 소비는 우연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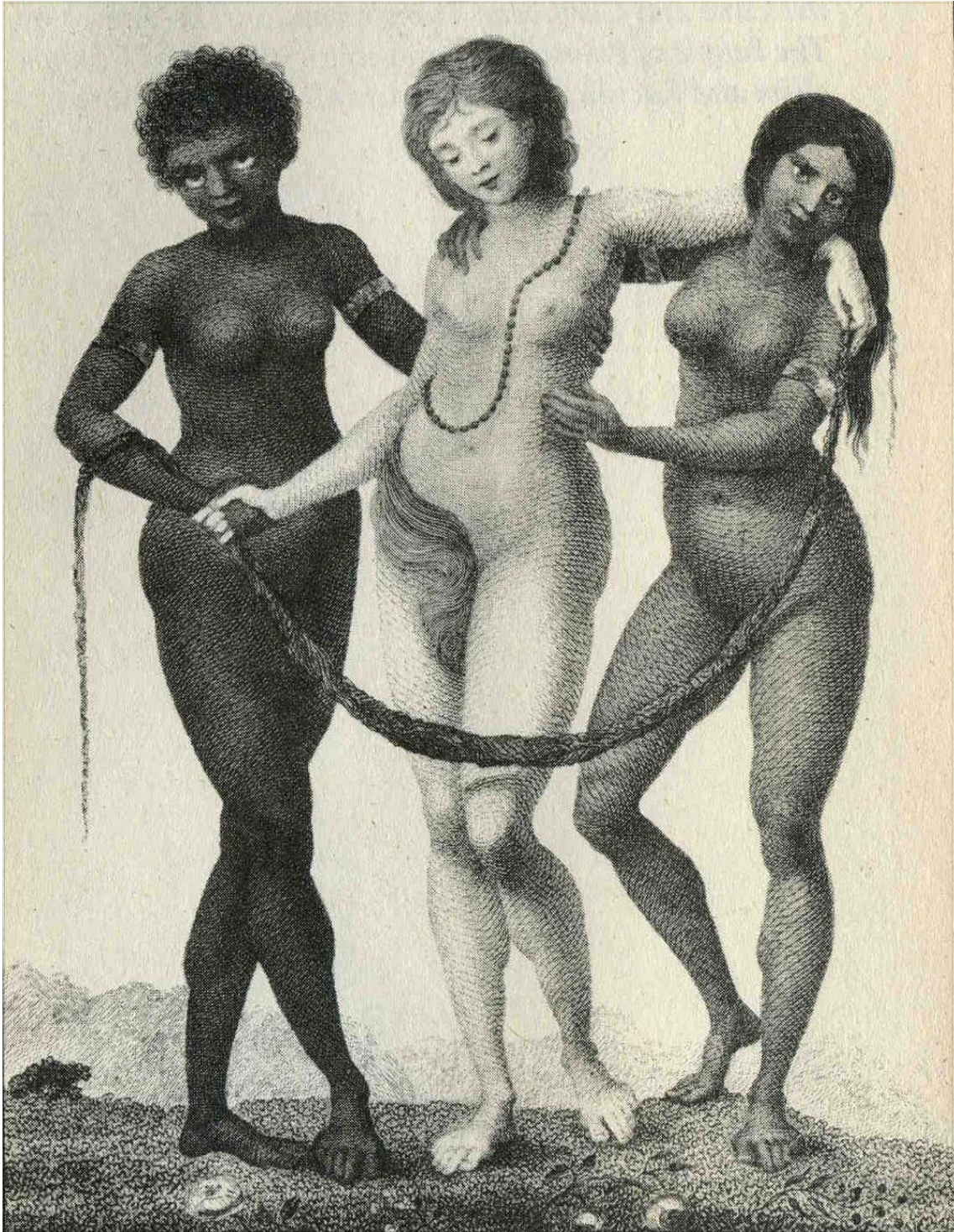
민츠의 이 같은 분석은 우리 시대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 교수는 시장이란 그 어느 시대에도 자유롭지 못했음을 역설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시장의 자유’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했으며, 그러므로 뜯어보면 특정한 주체, 즉 당시 영국 기득권 집단의 ‘손’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손이 바로 민츠가 드러내고자 하는 권력의 속성이고, 민츠는 그것이 작동한 방식과 그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공급의 측면을 들여다보자. 카리브 지역에서 사탕수수를 대량생산하기 위해 강제 이주된 천 3백만³⁾의 노예들을 수요에 대한 당연한 공급의 원리로 이해해야 할까? 카리브 지역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이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우연적인 시설’은 아니었다. 아프리카로부터 더 이상의 노예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농장주들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계약노동자(indentured laborers)를 들여와 노예의 후예들과 경쟁시켰으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했다. 나아가 피지(Fiji)와 모리셔스(Mauritius)와 같은 다른 열대지역 식민지로 생산지를 옮기게 되고, 그 곳으로 노예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인도의 계약노동자를 들여와 플랜테이션 노동력으로 활용했다. 민츠가 분석하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농민도 아니고 소작농도 아닌 농업노동자였다. 플랜테이션은 이들 농업노동자를 근대적 노동력으로 활용한 대단히 짜임새 있는 체제였으며, 그 기계적인 분업 공정도 산업혁명보다 앞서 개발되어 실천된 것이었다. 이것이 『설탕과 권력』의 제2장 ‘생산’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다.

책의 제3장은 설탕의 ‘소비’를 다룬다. 설탕의 소비 역시 우연적이지 않다. 민츠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동계층

3) 바베이도스(Barbados)의 경우 1701~1810년 사이에 252,500명의 노예가 수입됐으며, 자메이카(Jamaica)에서는 같은 시기에 662,400명이 수입됐다고 한다.



설탕과 권력의 연관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비주얼. 윌리엄 블레이크의 판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가 지배하고 있는 유럽』 (1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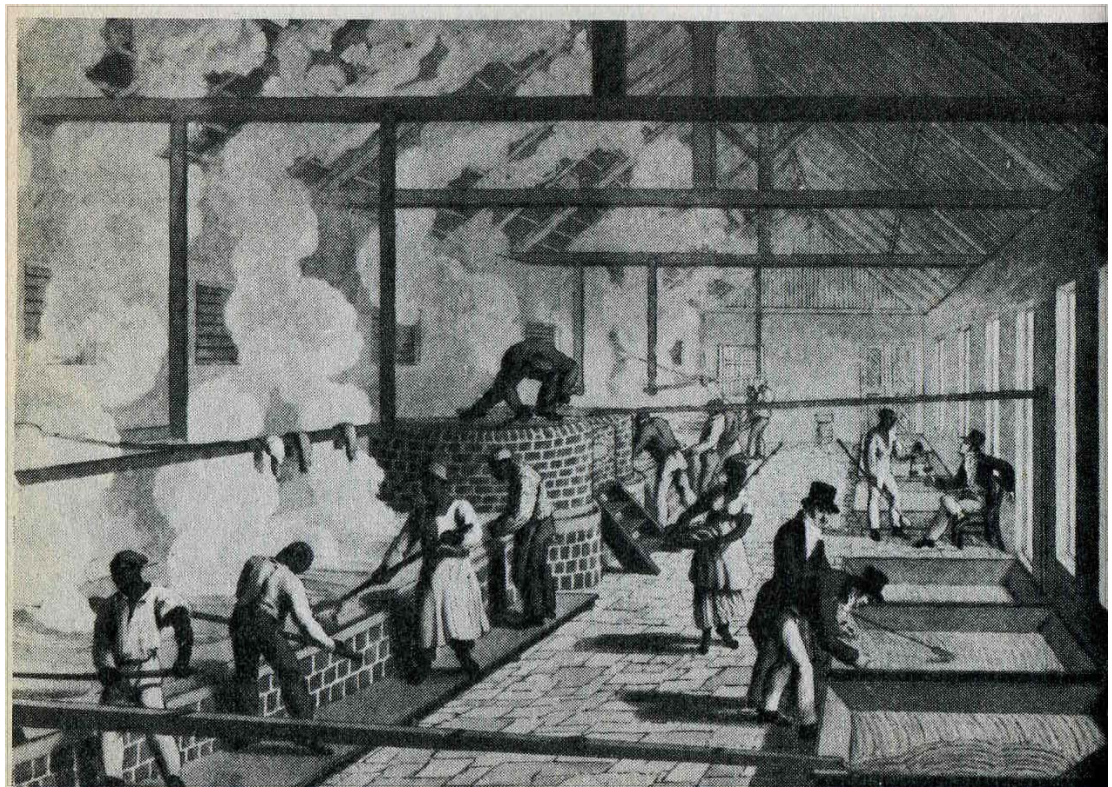
의 설탕소비는 상류층의 소비를 모방한 데서 유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탕은 대량생산되기 이전에는 희귀한 재화여서 상류층만 소비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책에 나오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 대사를 접견했는데 그가 남긴 기록에는 여왕이 단 음식을 대단히 좋아해서 이빨이 모두 썩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왕족과 귀족만 소비할 수 있었던 설탕이 어떻게 대중화됐는가를 두고 상류층을 모방하고자 하는 소비로 해석하는 것은 그 소비가 자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소비가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소비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도 그 개인이 져야만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런데, 민츠는 그 소비가 절대로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설탕의 소비는 홍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질이 좋지 않은 영국에서 일반 대중은 맥주나 진, 즉 주류를 음료로 소비하고 있었다. 홍차는 일반 대중을 ‘방탕한 무리’에서 ‘절제된 노동력’으로 훈육할 수 있는 훌륭한 음료였다. 실제로 그 당시 정치가들은 홍차를 주류를 대체할 만한 ‘도덕적으로 우수한’ 음료로 선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홍차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국가주도로 진행된 금주운동(Temperance movement)과 무관하지 않다. 홍차와 설탕의 가격은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다른 식자재에 비해 저렴하기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홍차에 탄 설탕은 가격에 비해 높은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품 첨가제였다는 점이다. 식탁에 따뜻한 차가 있으면 주식인 빵하고만 곁들여져도 ‘따뜻한 식사’ (hot meal)가 구성되어 급속도로 확산됐다는 민츠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고 의미심장하다. 이는 여성들이 공장노동인력으로 보급되면서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게 되자 더욱 더 빠르게 보급됐다. 온



소비: 20세기 중반 영국 공장에서의 'tea break'

가족이 따뜻한 음식을 보다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부패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는 음식들이 개발됐다. 빵에 발라먹는 잼, 미리 만들어 놓고 빵과 곁들여 먹는 푸딩도 이 시대에 탄생했다. 이들 음식이 갖는 공통점은 다름 아닌 설탕이라는 재료에 있다. 설탕은 단맛도 내지만 음식보존의 기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사습관은 공장운영에도 안성맞춤이었다고 민츠는 해석한다.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한정시켜 놓고 생산라인을 가동시켰다는 설명이다.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이 패스트푸드와 같은 식사는 공장의 근대적 공정과 운영에 잘 맞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형성된 설탕의 소비 역시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며, 그 어떤 이해관계나 세력과 무관하게 발전된 것도 아니라고 민츠는 주장한다.



생산: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노예와 설탕 제조과정(시드니 민츠, 『설탕과 권력』)

『설탕과 권력』은 시장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함축하고 있다. 민츠는 설탕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도덕적 물음을 드러내 놓지는 않는다. 그러나 책을 읽어 본 독자라면 누구라도 민츠가 이러한 도덕적 물음을 던지기 위해 이 책을 썼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예의 활용은 과연 도덕적일까? 사람을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고, 짐승처럼 쫓아서 붙잡고, 거의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쇠사슬로 묶어 운반하여, 채찍으로 다스려 사탕수수를 자르고 그 원액을 추출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민츠는 또한 그 운반과정에서 4백만 명의 노예가 죽었음을 명시한다. 다시 말해, 9백만 명의 노예를 쓰기 위해서는 천 3백만 명의 노예를 잡아서 싣고 왔어야 했다는 말이다. 도덕적 물음은 소비에도 적용된다. 설탕은 중독성이 강한 식품이다. 단맛에 길들여지면 계속 단 음식을 추구하게 된다. 생존을 위해 칼로리를 보충해야만 했던 노동계층에게 설탕은 처음에는 허기를 채우는 식자재였지만, 중독성이 고착화된 후에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오늘날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료 중의 하나가 설탕이다. 애석한 것은 이미 선진국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대체음료와 음식을 개발하고 소비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도상국에서는 값싼 과당(high fructose syrup)을 함유한 탄산음료가 물보다 더 싸기 때문에 대량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설탕의 소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일까?

3.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시드니 민츠

이제까지의 내용이 민츠가 일반 독자에게 던지는 물음과 이에

대한 그의 해석이라면, 지식인 집단을 겨냥한 물음은 따로 있다. 『설탕과 권력』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점을 놓치기가 쉽다. 그런데 민츠는 사람과 문명을 탐구하는 인문사회과학을 하는 모든 학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묻고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민츠는 1950년대 초반에 푸에르토리코의 농민을 현지에서 연구하다가 설탕의 역사까지 추적하게 됐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문화인류학은 소위 ‘미개문명’, 즉 서방세계와 지리적·문화적 거리가 먼, 개발되지 않은 오지의 문명을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선진문명’ 또는 ‘근대문명’을 연구하는 분야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사회학이다. 사회학은 프랑스의 콩트와 뒤르켐의 문명진화론에 입각하여, 현대에 들어와서는 근대화 이론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회와 그 구성원을 분석하는 학문이었다. 민츠의 탐구는 푸에르토리코 농민이라는 주체와 그 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분법적인 접근이 유효하지 않음을 발견한 데서 시작된다. 문명과 동떨어진 ‘원주민’ 문화가 과연 현대에 얼마나 존재할까? 원주민도 아니고 소위 현대적 인간도 아닌 플랜테이션 노동자는 무엇, 아니 누구였을까? 그들은 그 당시 사회과학의 그 어떤 학문분야에서도 깔끔한 개념으로 정리될 수 없었다. ‘원주민’이기 이전에 이들은 강제로 이주된 노예와 본토 인디오의 후예였고, 농민이기 이전에 농업노동자였고, 소위 ‘문명’, 즉 제1 세계의 ‘때’가 묻지 않은 ‘원초적인’ (pristine) 문명도 아니요, 그렇다고 근대화의 표상으로 자리 잡은 서구사회의 문명화된 현대인도 아니었다. 이들은 소위 미개문명(primitive culture)도 아니었고, 발달된 문명(developed culture)도 아니었다.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집단과 문명들이 대단히 많았다. 기존의 학문세계는 서방세계의 시각에서

문명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그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식민지 경제를 경험한 문명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 왔던 게 사실이다. 민츠는 이들 패러다임과 접근방식에 경종을 울렸다. 1960년대의 근대화 이론, 그리고 그간의 문화인류학의 허를 찌르는 대상을 뒤늦게나마 주목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학문적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민츠는 『설탕과 권력』에서 별도로 이 주장을 강하게 설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의 책은 미개문명과 선진문명 사이에 분명히 다양한 문명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 서구의 학계가 자기편의에 따라 망각한 문명은 바로 식민지 문명이라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카리브 지역의 크레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어찌 식민지 경제의 주된 실천행위였던 노예무역과 사탕수수 원액의 무역을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식민지 경제는 이 크레올 문화를 생성시킨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설탕과 권력』에서 민츠는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을 인용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지만, 1492년 신대륙 발견 이후에 새로운 식민지 질서와 함께 새로운 세계체제가 형성되고 작동되는 것을 설탕이라는 재화를 통해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츠의 업적은 현재 부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접근에 매우 큰 시사점을 던진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주의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는 엔리케 두셀과 월터 미놀로와 같은 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탄생 자체가 세계체제라는 구도하에 메트로폴리스와의 관계에서 식민주의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식민지성 안에서는 유럽과 유사한 그 어떤 근대성도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얘기한다. 탈식민주의 프로젝트는 탈식민주의를 인종적 배척,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불평등, 정치적 배제를 뛰어넘는 총체적 해방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마찬가지로 민츠의 업적도 이러한 총체적 해방을 향한 학문적 실천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츠와 동시대인 이면서 함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인류학을 수학한, 그 역시 세계 체제에서의 ‘연관성’ (connections)을 중시한 『유럽과 역사가 없는 사람들』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의 저자 에릭 울프(Eric Wolf),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을 장애인으로 보내면서 장애와 권력의 문제를 해부한 『침묵을 강요당한 육체』 (The Body Silent)를 쓴 로버트 머피(Robert Murphy)와 함께 공유했던 인간해방에 대한 그의 열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츠는 인간해방을 실천하기 위해 그 식민지성을 인지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리하며: 푸쿠의 극복을 향해

1492년 신대륙을 ‘발견’ 한 콜럼버스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은 여전히 엇갈린다. 그를 ‘발견의 영웅’으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식민지의 원흉’으로 원망하는 시각까지 그 스펙트럼은 드넓다. 지금까지도 신대륙의 발견을 원주민 인디언에게 문명의 세계를 소개하는,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유익한 과정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서구인이 신대륙에 퍼뜨린 천연두 바이러스의 폐해와 이로 인해 사망한 원주민의 수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지배와 권력, 부의 축적을 위한 항해였다. 콜럼버스 본인이 회고록에 명시하고 있듯이, 이 항해는 무역로의 독점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항로를 찾기 위함이었다. 원주민들은

순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콜럼버스는 적었다. 정복은 그 목적이 분명하고 폭력을 동원하며 이해관계가 분명하다. 정복은 곧 권력이다. 설탕의 확산은 우연적이기는커녕 정복의 목적이자 권력의 소산이었다.

나는 칠레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광산지역의 영국인 ‘주인님’ 들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 홍차문화를 접한 적이 있었다. 처음 도착해서 하숙을 하고 있을 때 현지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저녁식사 대신 홍차를 마시는 티타임이 있었는데, 이로 저녁식사를 대신했던 것이다. 여기서 바로 문화적 차이도 발견하게 됐다. 나에게도 빵 한 조각에 버터를 바르고 홍차에 설탕을 타 마시는 것이 식사가 아니었지만, 이 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적인’ 식사(meal)였다. 이 ‘저녁식사’로 허기를 채울 수 없게 되자 나는 밥에 계란프라이를 얹어 비벼 먹기 시작했다. 우리 하숙집 주인내외는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보다 살이 찌지 않는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설탕 소비의 차이였다. 그들은 아침저녁으로 홍차에 설탕을 타 마셨고, 점심식사에도 오렌지 주스를 짜 마시면서 설탕을 가미했다. 이 지역에서도 일찍이 광산노동자에게 회사매점에서 설탕을 판매했고, 홍차에 설탕을 타 마시게 하여 ‘따뜻한 식사’ 한 끼니를 해결하게 했다. 권력은 생각지도 않게 영국과 카리브 외의 지역까지 뻗어 있었던 셈이다.

민츠의 책을 읽어 가면서 문득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오늘날 OECD 국가로 도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자. 아침에 출근하여 커피를 타 마시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가 지적했듯이, 커피와 홍차, 그리고 초콜릿은 산업혁명의 연성마약이었고, 이들 음료에는 설탕이 꼭 들어가야만 했다. 우리의 일상도 이것을 작동시킨 권력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피와

차의 소비가 점차 보편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최근 미국의 저명한 폴리처상을 타기도 한, 주노 디아스(Junot Díaz)의 『오스카 와오의 짧고도 놀라운 인생』은 도미니카공화국의 트루히요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온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책의 도입부에서 화자는 주인공들의 운명은 도미니카공화국, 나아가서는 아메리카 대륙이 받은 저주 ‘푸쿠’(fukú)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푸쿠는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서, 때로는 ‘콜럼버스 제독의 푸쿠’라고도 한다. 화자는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화자는 이 푸쿠 때문에 그들이 모두 ‘똥통에’(in the shit) 빠지게 됐다고 말한다. 푸쿠는 아마도 카리브 지역을 지금의 상태로 만들어 낸 권력을 형상화하는 개념이자 식민지성을 읽어 내고 표현해 내는 또 다른 방식이 아닐까.

그 식민지성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티 혁명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프랑스의 풀이 한 번 꺾여,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사탕수수 재배와 원액 생산을 영국처럼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민츠는 기술한다. 또한 프랑스인들은 와인 마시는 습성을 쉽게 버리지 않아서, 결국 홍차와 설탕을 위한 큰 내수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보았을 때 식민지성의 극복을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아이티의 독재자 베이비 독이 귀환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그 극복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도 실감하게 된다.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미 1773년 유럽인들은 이 식민지성의 폐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카리브

지역을 둘러보고 온 어느 프랑스 신부의 회고다. “커피와 설탕이 유럽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두 상품이 위대한 두 대륙의 불행을 초래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메리카의 경우, 이 작물을 재배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가 점멸하고, 아프리카의 경우 이 작물을 재배할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그 인구가 점멸했다.” 민츠가 『설탕과 권력』의 도입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이다. 현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식민지성의 정체를 드러낸 민츠의 『설탕과 권력』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던지는 물음은 바로 이것이다.

조경진 -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